

◆ 환경B2B콘소시업 총회 성황 ◆

산업자원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환경B2B콘소시업” 시범사업 관련 독자법인 설립 및 총회가 지난 4월 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강남 신사동 환경관리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B2B콘소시업 구성 및 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콘텍크 주최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대한하이테크, 한국연수, 고려소각로공업, 유일정공, 환경과생명, 지환테크, 창민테크, 환경일보, 환경상품제조협회, 자원재활용기술연합,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업체, 협회, 공단 등으로 구성된 74개사가 참석했다.

김학명 콘텍크 사장은 “이번 환경산업콘소시업이 환경 각 분야를 대표하는 환경기술력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다수기업이 참가했다”면서 “전문업체의 투명한 선정, 자문단 위촉운영, 별도법인·협회설립 등을 통해 콘소시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3년동안 추진되는 환경B2B콘소시업은 총 사업비가 30억8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74개 구성사의 민간부담이 약 12억3천여만이며, 정부출연금인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환경B2B사업이 추진되면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기계장치 및 기술, 환경상품·약품, 환경기자재 등 환경 전 분야의 다량의 매매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콘소시업사는 정부 및 지자체, 국내제조업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내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카달로그 등을 통한 해외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전개할 계획이다.

◆ 미생물 이용한 저비용 폐수처리기술 개발 ◆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업체 (주)일류기술(대표 남승엽)은 폐수에 함유된 질소 처리 효율을 35%정도 높이면서 시설비를 20~30% 줄일 수 있는 “자연 생태형 생물 반응조”

(KNR)를 개발했다고 지난 4월 4일 밝혔다.

회사측은 “경기도 이천 샘표식품(주) 폐수처리장에서 KNR을 시험한 결과 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372ppm에서 12ppm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325ppm에서 14ppm으로 각각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56.9ppm이던 폐수의 질소화합물 총량을 13ppm 이내로 낮추는 데 성공해 처리효율이 70% 이내였던 기존 장비에 비해 질소 처리 능력을 90% 이상 높였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또 “기존 시설에 비해 미생물 농도를 수백~수천배 높여 처리시설 건설비를 20%, 운영비와 에너지 비용을 각각 30%씩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권중천 박사는 “폐수 처리에 쓰이는 미생물의 활성을 강화시켜 전체적인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폐수의 종류별로 우수한 처리 성능을 나타내는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기술 새 수익원 부상 ◆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면서 환경기술이 기업들의 수익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6월 환경, 안전, 보전을 기업 경영 이념으로 삼고 ‘환경안전보건 방침(ECO-YHES; Yes, Health, Environment, Safty)’을 수립해 환경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룹내의 환경사업 부문을 통합, 환경사업본부로 발족시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하수처리사업은 한화가 주력하고 있는 환경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 공사 수주금액은 총 2,500억원. 특히 프랑스 온데오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 하수처리장 공사는 수주금액 1,000억원으로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하수처리 민간 사업자로 한화는 외국기업의 처리 공법 기술까지 얻을 수 있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사업에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K(주)는 매립장가스자원화, 음식물쓰레기가스 자원화 등 그동안 축적한 환경관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울산시 성암 쓰레기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 시설은 올 7월 완공 예정. 이 시설에서 정제된 연료를 LNG 대체 연료로 석유화학공단에 공급한다. 이밖에 울산시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테트라테크와는 토양 복원 사업기술 제휴를 맺고 유티저장시설 주변 등의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 SK(주), 촉매기술 수출 ◆

SK(주)는 촉매 제조 다국적기업인 지오리스트(Zeolyst International) 사에 자체 개발한 화학공정용 촉매제조 기술을 제품 판매액의 30%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판매했다고 지난 4월 1일 밝혔다.

전세계 석유화학공정 촉매시장은 연 1000억원 규모로 현재까지는 미국 UOP사가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나 SK(주)와 지오리스트사는 향후 4년 이내에 전세계 시장의 80%까지 점유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SK(주)는 덧붙였다.

SK(주)가 이번에 기술 판매한 촉매 'ATA-11' 과 'ART-11' 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방향족 성분을 고부가가치 방향족 성분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으로 전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촉매다.

SK(주)는 대덕기술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약 50억원을 들여 이들 촉매를 개발한 뒤 울산공장에서 2년여의 공정 적용 실험을 거쳐 최근 상업화에 성공

했다고 전했다.

이 촉매들은 기존 제품보다 높은 경제성을 갖췄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반응성이 우수해 수율이 5% 정도 증가하며 낮은 온도(325도)에서 반응하므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수명도 3년 이상으로 다른 제품보다 길다고 설명했다.

◆ 에코액티바, 중국에 기술 전파 ◆

환경벤처기업 에코액티바(www.ecoactiva.co.kr)가 중국측 유한회사와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중국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에코액티바 윤선규 사장은 최근 윤희봉 회장 등 에코액티바측 일행단이 중국 할빈을 방문, 중국할빈환경공립환경보호기술개발 유한회사와 거린메이스과학기술개발 유한회사 등 2개사와 중국 대경유전지역의 오폐수처리 및 지하수정화 등에 관한 공동협력방안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중국 대경련화회사 및 상해제지공장 폐수 등 총 8만여톤의 처리방안에 대해 공동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에코액티바가 오폐수 처리 및 지하수정화의 핵심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환경벤처 우수기술을 중국에 전파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윤선규 사장은 "당사의 특화된 수질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중국측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오폐수처리, 유전지역 지하수복원사업 등을 모색하는 등 중국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